

공군장병의 거부민감성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조절효과

박원주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irmen's Rejection Sensitivity, Depression, and Anxiety

Won-Ju Park

Division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군 장병들의 거부민감성이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군 장병들의 군 생활 적응에 있어 위험 요소들을 찾고 이들의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시에 소재하는 공군 장병 126명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 우울, 불안,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거부민감성,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이들 간의 상호 작용 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조절 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 거부민감성과 불안의 관계에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의 조절 효과도 역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은 거부민감성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상호작용 패턴에 대해 단순 주효과 기울기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군생활 적응의 고위험 요소이며 이들을 위한 상담적 개입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both anxiety and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ed a method of screening soldiers at high risk of depression and anxiety and interventions for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The data about anxiety, depression, rejection sensitivity,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was collected from 126 airmen in S city, South Korea. To test the moderation effe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which the rejection sensitivity, anxiety,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and their interaction terms were hierarchically entered. The moderation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The specific interaction patterns in each of thes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were examined. Finally, the importance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as a high-risk factor in army life and the clinical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words : anxiety, depression, moderating effect, rejection sensitivity,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Corresponding Author : Won-Ju Park(Hanyang Cyber Univ.)

Tel: +82-2-2290-0364 email: 1140002@hycu.ac.kr

Received January 23, 2018

Revised March 9, 2018

Accepted April 6, 2018

Published April 30, 2018

1. 서론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은 의무복무제도에 따라 군에 입대하고 일정 기간 군 생활을 해야 한다. 이들이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건강한 군 생활을 하는 것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및 주변인들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병사들 중에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 정서적 부적응을 보이며 우울, 자살 및 타살사고, 충동성, 분노, 불안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1,2]. 이러한 부적응 문제는 폭행, 총기사고, 자살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3]. 군대에서 이러한 사고가 빈발하면서 장병들의 정신건강과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군상담이 도입되었다. 군상담은 병사들 중 부적응 고위험군 선별 및 상담적 개입, 다양한 예방적 접근 등,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향상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군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병행되어야 할 군인 대상의 정신건강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군대 사회는 고유의 특색이 있고 따라서 군대에서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 적응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고위험군을 찾고 이들의 부적응적 심리 기제과정을 밝힘으로써 군상담에의 적용점 제시 및 병사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상담적 개입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한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청년들 중 많은 수는 군 입대를 앞두고 군대에서의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큰 걱정과 두려움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초기 청년들은 대인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사소한 갈등에도 위축되고, 그것이 큰 갈등으로 확대되어 관계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군대에서도 성장배경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단체생활을 하며, 엄격한 규율과 명령체계, 통제 등이 적용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학창시절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군대 내에서의 다양한 부적응 문제들에 대한 위험요인일까?

군 조직은 수직적 명령구조와 통제적인 환경 특징을

갖고 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율적인 생활을 해 온 청년들은 입대 이후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회적 지지가 부재하는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노출되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신영, 이동기, 그리고 박현주 [4]는 자살시도 병사들의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선임병 및 간부의 무시, 인격모독에 의한 자존감 저하’,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군생활에서의 욕구좌절과 소외감은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5].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계급과 직급이 분명하며 엄격한 명령과 규율을 지켜야 하는 군생활에서 병사들은 동료, 선임, 간부 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군생활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구미선[6]은 병사들이 대인관계에 위협을 받고 갈등을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험은 거부민감성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다.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에서 거부를 과도하게 예상하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불안 및 우울을 과도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거부 민감성은 군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거부 도식[7]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거부민감성[8]을 보이는 경우 동료 및 선임과의 관계, 업무능력, 심신건강 등의 군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거부 민감성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거부 경험이 내면화된 것으로 부모의 적대적인 비난, 방임, 신체적 학대 등의 영향을 받는다. 거부민감성은 거부를 회피하는 동기로 나타나며, 사회적 상황에서의 왜곡된 지각 및 기대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거부 민감성은 극단적인 사회적 회피, 즉 사회공포나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적 우울, 의존성 성격장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거부민감성은 하나의 내적작동모델로 기능하면서 대인관계상황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데 관여하고 대상에 대한 자신의 행동적·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친다[9]. 거부민감성의 핵심은 거부를 예상하면서 경험하는 불안과 분노이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거부를 과도하게 예상하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파트너의 모호한 행동을 거부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에서 안전감을 느끼기 어려워하며 관계 만족도가 낮다[10]. 또한 이들은 빈약한 대인관계기술과 부적응적 대인 행동들을 보인다[11].

이러한 거부민감성은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높으며, 자기침묵을 더 많이 하고, 친구 지지를 적게 받으며 우울 수준이 더 높다[12,13]. 거부민감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 및 일반화된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14], 동성애자들의 우울 및 사회불안과 관련되어 있으며[15], 여성들의 일반화된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16]고 했다. 국내 연구 결과들을 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높고, 대인관계에 스트레스가 많고[17], 우울이 높아진다[18,19].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회피적이고 위축되고 우울 및 불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부민감성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관계경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사회적 위축은 거부민감성의 부정적 영향력을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피해자들에게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우울 및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20], 불안, 우울, 공격성, 대인 예민성, 강박증상, 편집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21]. 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기피하고[22] 우울 및 외로움을 보이며[23], 또래들과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갖지 못하고 소외되며[24] 성인기의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25].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대인관계 및 사회적 위축, 사회적 관계에 있어 회피를 야기하며[26],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27]. 뿐만 아니라 또래의 신체적, 언어적 괴롭힘, 배척,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무시 등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거부는 거부에 대한 불안과 분노 기대를 증가시킨다[28,2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거부민감성으로 인한 관계에 대한 왜곡된 지각 및 기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부정적인 관계 및 괴롭힘의 경험은 현재의 관계에서의 갈등을 보다 부

정적으로 인식하고 향후 더 악화될 것을 예상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생활에서의 불안 및 우울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 상황을 과거 경험에 비추어 좀 더 비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어 우울이 더 증가되며, 관계 악화에 대한 불안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억제를 더 많이 하고 사회적 지지를 덜 받고 이것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 부정적인 관계경험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감소된 자기표현과 사회적 지지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자들은 관계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거부민감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높은 대인예민성은 거부민감성이 활성화되어 불안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높은 대인예민성은 거부민감성이 활성화 되어 대인관계에서 거부에 민감하고 불안해질 때 그것을 증폭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이후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성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부정적 관계 경험에 대한 기대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거부민감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거부민감성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더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연구가설

1.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2. 거부민감성과 불안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충남 S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문하사 및 병사(이등병~병장) 18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고 총

18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151부를 회수하였고, 동일패턴 및 무성의한 응답의 설문지 25개를 제외하고 126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평균 23세이며, 학력은 전문대 재학, 4년제 대학 재학, 전문대 졸업 순이었고, 출신 지역은 경기·인천, 서울, 경상도 순이었다.

2.2 측정 도구

2.2.1 거부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거부민감성척도는 Downey와 Feldman[30]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복동[31]에 의해 번안, 타당화된 성인초기용 한국판 RSQ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에서는 성인 초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18개의 상황을 제시하는데 이는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구 등의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각 상황마다 2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상황마다 자신의 요구가 거부될까봐 불안한지와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으며, 응답자는 질문에 대해 각각 Likert식 6점 척도로 답할 수 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거부에 대한 불안 정도와 받아들여질 것에 대한 예상 점수의 곱 점수를 합하여 18로 나눈 값이 거부민감성 점수이다. 이 때 각 상황의 2번 문항, 즉 부탁이 받아들여질 것에 대한 예상 점수는 역채점한다. Downey와 Feldman[30]의 연구에서 보고 된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었고, 이복동[31]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6이다.

2.2.2 우울 및 불안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미국 임상 심리학자인 Derogatis가 제작한 90문항의 SCL-90-R을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32]이 번안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검사는 90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Likert식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13문항으로 구성된 우울 척도, 10문항으로 구성된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32]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우울 .81, 불안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울 .90,

불안 .89이다.

2.2.3 학교폭력 피해경험 척도

학교폭력에 관한 척도는 Olweus[33]의 'Bully/Victim Questionnaire'와 'Junior Questionnaire'를 안정만[34]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폭력, 집단따돌림, 언어적 폭력, 괴롭힘, 금품 탈취, 심리적 폭력의 내용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피해 경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했다. 안정만[34] 연구에서의 학교폭력 피해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다.

2.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S시 소재 공군부대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2주에 걸쳐 각 부대 간부들이 장병들에게 직접 배부해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4 자료 분석

126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거부민감성, 우울, 불안,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들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또한 조절효과 검증 을 위해 중심화 값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 윈도우용 SPSS 23.0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주요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 분석

거부민감성, 우울, 불안,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상관과 평균을 알아보았다(table 1). 그 결과, 거부민감성은 우울($r=.491, p<.01$) 및 불안($r=.525,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337, p<.01$)이 있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337, p<.01$)이 있었고, 불안과도 유의미한 정적상관($r=.304, p<.01$)이 있었다. 우울은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상관($r=.887, p<.001$)이 있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이 높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높으며, 학교폭력 피

해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및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1. rejection sensitivity				
2. depression	.491**			
3. anxiety	.525**	.887**		
4.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337**	.337**	.304**	
<i>M</i>	7.94	1.49	1.50	1.18
<i>SD</i>	4.59	.59	.62	.56

* $p < .05$, ** $p < .01$, *** $p < .001$

3.2 거부민감성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조절 효과

거부민감성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거부민감성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독립변인에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거부민감성,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거부민감성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각 변인은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중심화(centering)한 값을 사용하였다[35].

분석결과 1단계에서 거부민감성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거부민감성: $\beta = -.425$, $p < .001$; 학교폭력 피해 경험: $\beta = .194$, $p < .05$). 그리고 2단계에 투입한 거부민감성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beta = .224$, $p < .05$)(table 2).

Table 2.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S.V.V.E.)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R.S.) and depression

D.V	I.V.	β	R^2 (adj R^2)	ΔR^2	<i>F</i>	
depression	step 1	R.S.	-.425***	.274 (.262)	.274	23.213***
		S.V.V.E.	.194*			
	step2	R.S.	-.395***			
		S.V.V.E.	-.050	.300 (.283)	.026	17.413***
	R.S.× S.V.V.E.	-.224*				

* $p < .05$, ** $p < .01$, *** $p < .001$

두 번째, 거부민감성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거부민감성은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거부민감성: $\beta = -.476$, $p < .001$), 거부민감성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beta = -.241$, $p < .05$)(table 3).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S.V.V.E.)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R.S.) and anxiety

D.V	I.V.	β	R^2 (adj R^2)	ΔR^2	<i>F</i>	
anxiety	step 1	R.S.	-.476***	.294 (.282)	.294	25.573***
		S.V.V.E.	.143			
	step 2	R.S.	-.444***			
		S.V.V.E.	-.011	.324 (.307)	.030	19.463***
	R.S.× S.V.V.E.	-.241*				

* $p < .05$, ** $p < .01$, *** $p < .001$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조절효과에 대해 단순 주효과 기울기 분석[35]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 낮은 집단(전체 집단 중 하위 16%에 해당함)은 학교폭력 저 집단,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 높은 집단(전체 집단 중 상위 16%에 해당함)을 학교폭력 고 집단으로 나누고, 평균을 중심으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우울의 변화를 그래프로 살펴보았다.

그림1에 의하면 거부민감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울이 높아지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거부민감성이 높아짐에 따른 우울의 증가가 더 급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조절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안 수준이 더 높으며, 거부민감성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높은 사람들의 불안 수준이 더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거부민감성이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조절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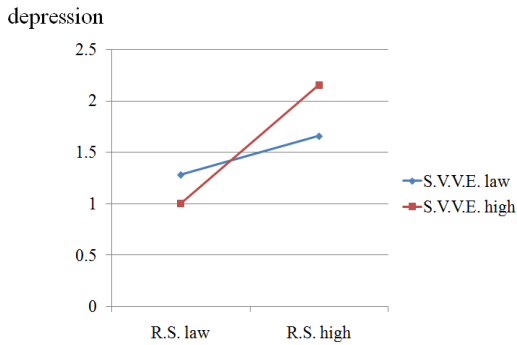


Fig. 1.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S.V.V.E.)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R.S.) and de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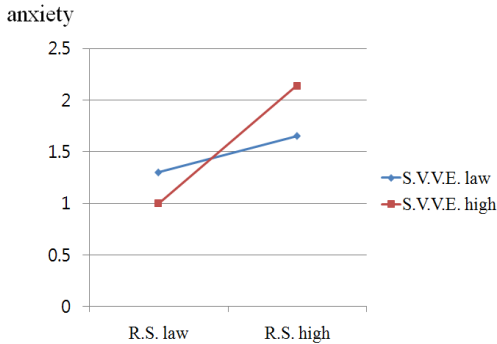


Fig. 2.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S.V.V.E.)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R.S.) and anxiety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군상담에의 함의를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부민감성, 우울, 불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관계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 거부민감성은 우울 및 불안과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었고, 학교폭력 피해경험도 우울 및 불안과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경향이 높으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할 가능성도 높음을 의

미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장병들의 경우 우울 및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 및 불안이 높으며,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거부민감성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홍상환과 박해정[3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거부민감성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높고 낮음에 따라 거부민감성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많이 할수록 거부민감성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적게 할수록 거부민감성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장병들의 경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겪는 관계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기대, 관계에서의 소외감 등이 높아지고 이는 군생활에서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더 상승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종합적 논의 및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장병들 중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 및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병들의 거부민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비난, 무시, 욕설 등의 부정적인 대인간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관계 경험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장병들은 간부, 선임병, 동료들의 비난과 무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므로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입대 후 부대 내에서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에 대해 우울 및 불안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보다 크므로 입대 전 이들의 거부민감성에 대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입대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측면에 대한 상담적 개입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대인관계 상황을 실제보다 비관적으로 해석 및 예상하고 쉽게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개입을 하고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군대에서의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군대에서는 입대 후 심리 검사 등을 통해 관심 병사들을 선별하는데, 이러한 문항들에 거부민감성과 함께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포함된다면 보다 정확하게 군생활 부적응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관계 경험에서의 상처로 인해 군대에서의 단체 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장병들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이후 군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 및 대처방법 등을 사전 교육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부정적 영향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지 여러 해가 지나도 그로 인한 대인관계 부적응 문제는 여전히, 특히 군대 등 단체생활에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예방책 개발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군 장병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연구 참여자 수가 적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 일반화를 위해서 육군 및 해군 등 더 다양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군부대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학교폭력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경미한 사안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영향력 또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 영역별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학교폭력 경험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군적응에 있어 고위험군을 찾는데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고, 입대 전 상담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장병들의 우울, 불안 외에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군대 내에서는 우울, 불안, 자살 외에도 폭행, 총기 사고 등 공격성을 드러내는 문제들도 빈발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장병들의 군 생활에서 다양한 측면의 적응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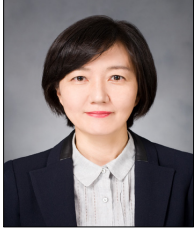
References

- [1] J. D. Hong, & N. M. Yang, "An effect of soldier stress on suicidal ideation: self-esteem, alienation, frustration mediating effec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2, pp. 1423-1441, 2013.
DOI: <http://doi.org/10.15703/kjc.14.2.201304.1423>
- [2] E. B. Hwang, *Influence of stress from military life on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meaning of life*, Master's thesis, Seogang University, 2015.
- [3] H. R. Choi, & S. H. Park, "Research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 influencing the military adjustment of Korean soldier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3, pp. 1743-1766, 2009.
DOI: <https://doi.org/10.15703/kjc.10.3.200909.1743>
- [4] S. Y. Jeong, D. G. Lee, & H. J. Park, "Concept Map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oldiers Who Actually Attempted Suicid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1, pp. 113-133, 2012.
DOI: <http://doi.org/10.15703/kjc.13.1.201202.113>
- [5] J. D. Hong, & N. M. Yang, "An effect of soldier stress on suicidal ideation: self-esteem, alienation, frustration mediating effec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2, pp. 1423-1441, 2013.
DOI: <http://doi.org/10.15703/kjc.14.2.201304.1423>
- [6] M. S. Gu,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Subjective Well-being of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and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2.
- [7] H. L. Kim, I. J. Lee, J. P. Ha, & N. M. Yang, "The Influence of Early Maladaptive Schema on Adjustment of Soldiers -The Mediating Effects of Military Life Stress and Ego-resili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 35, no. 2, pp. 297-322, 2014.
- [8] O. R. Kim, & W. J. Kim,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mong military soldiers: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mattering",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4, pp. 243-271,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04.23.4.243>
- [9] S. I. Feldman, & G. Downey,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6, pp. 231-247, 1994.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5976>
- [10] G. Downey, & S. I. Feldman,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6, pp. 1327-1343,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327>
- [11] M. J. Bernstein, & J. A. Benfield, "Past perspective is related to present relationships: past positive and negative time perspectives differences predict rejection sensitivity", *The psychological record*, vol. 63, pp. 615-628, 2013.
DOI: <https://doi.org/10.11133/j.tpr.2013.63.3.014>
- [12] J. M. Rhim, & K. J. Oh,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the mediating role of

- hostile behavior and self-silencing",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vol. 2, no. 2, pp. 183-195, 2016.
- [13] O. Ayduk, D. May, G. Downey, & E. T. Higgins,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9, no. 4, pp. 435-448, 2003.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02250911>
- [14] J. M. Cohen, B. A. Feinstein, C. Rodriguez-Seijas & C. B. Taylor, "Rejection sensitivity as a transdiagnostic risk factor for internalizing psychopathology among gay and bisexual men",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vol. 3, no. 3, pp. 259-264, 2016. DOI: <https://doi.org/10.1037/sgd0000170>
- [15] B. A. Feinstein, M. R. Goldfried, & J. Davila,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among lesbians and gay men: an examination of internalized homonegativ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as potential mechanis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80, pp. 917-927, 2012. DOI: <https://doi.org/10.1037/a0029425>
- [16] C. Dyar, B. A. Feinstein, N. R. Eaton, & B. London,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sexual minority women rejection sensitivity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40, pp. 120-137, 2016. DOI: <https://doi.org/10.1177/0361684315608843>
- [17] N. Y. Kim,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2009.
- [18] J. H. Jang, N. E. Kwak, & J. Y.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emotional regulation, rejection sensitivity, depression o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8, no. 1, pp. 285-304, 2016.
- [19] G. H. Nam, & S. H. Hong,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2, no. 2, pp. 111-134, 2015. DOI: <http://doi.org/10.16983/kjisp.2015.12.2.111>
- [20] E. O. Choi, *The effect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in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attachment with parents, friends and school*, Master's thesis, Gangnam University, 2015.
- [21] S. W. Shin, S. W. Kwon, M. S. Shin, & S. C. Cho, "A survey of the psychosis among school violence victim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11, no. 1, pp. 124-143, 2000.
- [22] S. Mrug, & M. Windle, "Bidirectional influences of violence exposure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Externalizing behaviors and school connectednes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37, no. 5, pp. 611-623, 2009. DOI: <https://doi.org/10.1007/s10802-009-9304-6>
- [23] K. K. Brockenbrough, D. C. Cornell, & A. F. Loper, "Aggressive attitudes among victims of violence at school", *Education & Treatment of Children*, vol. 25, pp. 273-287, 2002.
- [24] D. Olweus, "Bull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 1993.
- [25] S. Hugh-Jones, & P. K. Smith, "Self-reports of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building on children who stammer",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69, pp. 141-158, 1999. DOI: <https://doi.org/10.1348/000709999157626>
- [26] Y. Seo, "An effect of persistence and degree of exposure to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youth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6, pp. 223-253, 2014.
- [27] G. H. Nam, & S. H. Hong,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2, no. 2, pp. 111-134, 2015. DOI: <http://doi.org/10.16983/kjisp.2015.12.2.111>
- [28] N. R. Crick, J. K. Grotpeter,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6, pp. 710-722, 1995. DOI: <https://doi.org/10.2307/1131945>
- [29] B. London, G. Downey, C. Bonica, & I. Paltin,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17, no. 3, pp. 481-506, 2007. DOI: <https://doi.org/10.1111/j.1532-7795.2007.00531.x>
- [30] G. Downey, & S. I. Feldman,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6, pp. 1327-1343,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327>
- [31] B. D. Lee, *Adult attachment and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s: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ttribution styl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00.
- [32] K. I. Kim, J. H. Kim, & H. T. Won, "Symptom Checklist-90-Revision(SCL-90-R) in Psychiatric Outpatients", *Mental health research*, vol. 1, pp. 150-168, 1983.
- [33] D. Olweus, *Bull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 1993.
- [34] J. M. Ahn,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parenting attitude and abused adolescents on coping strategies against school violenc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1.
- [35] L. S. Aiken, & S. G. West,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Sage, 1991.
- [36] S. H. Hong, & H. J. Park,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Abuse and Victimization by Peer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 24, no. 2, pp. 59-74, 2013.

박 원 주(Won-Ju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철학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8월 : Georgia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2014년 3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육전담조교수

<관심분야>

상담심리학, 정신역동적 상담, 정서와 문화